

호주의 출산 및 가족정책의 현황과 과제

Matthew Gray

호주 가족연구소 부소장

1. 개 관

본 고에서는 호주 출산율의 현황과 합, 출산율 감소에 대한 다양한 설명들을 개략적으로 다룬다. 이러한 설명들은 출산결정에 영향을 주는 거시적 요인들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후 호주 가족을 지원하는 주요 정부 정책들을 소개하고, 호주 내에서 시행된 설문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출산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결과와 문헌 조사를 토대로 어떠한 정책이 출산결정에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한다.

2. 출산율, 인구구조와 향후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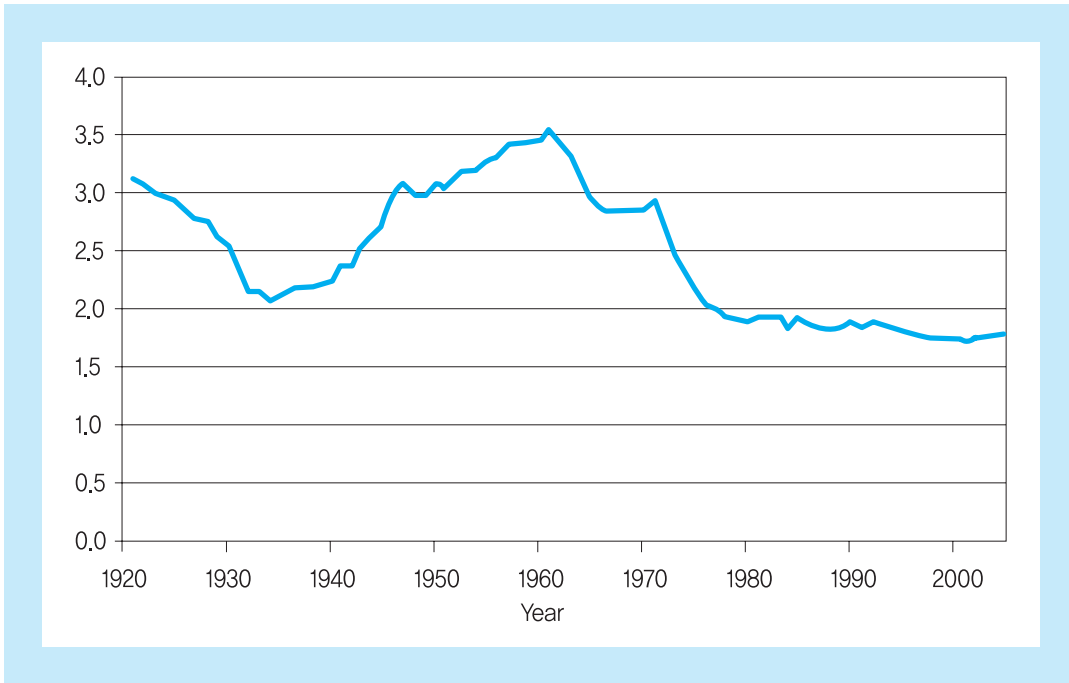
거의 모든 OECD 국가에서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은 인구를 지속시킬 수 있는 수준인(이하 인구대체수준: population replacement level)인 산모 1인당 2.06명 이하 수준으로 내려가고 있다. 한편 호주의 합계출산율은 1977년도에 이미 인구대체수준 이하로 내려갔으며,

1990년대 이후에는 산모 1인당 1.7에서 1.8명의 수준에서 정체되어있다([그림 1] 참조). 이러한 상황에서 기대수명은 꾸준히 증가하여 1901년의 55~59세에서 오늘날의 78~83세로 증가하여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림 2]는 합계출산율, 기대수명, 해외이민 등의 요인에 대한 구체적인 가정을 기초로 ABS가 예측한 바에 따라 2051년도의 예상 연령층 구조를 제시하고 있다([그림 2] 참조).

3. 저출산 · 고령화의 함의

저출산 · 고령화의 양상은 고령인구를 지탱할 수 있는 충분한 노동의 공급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낳는다. 아울러 주거, 보건, 레저, 교육 등 서비스 수요에도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 고령인구를 보살피는 주요 행위자는 가족임을 볼 때 무자녀 가정과 가족 해체의 증가, 해외취업을 하려는 청년층의 증가는 심각한 노동력의 부족과 젊은 층의 세금 부담을 초래할 것이다 (Rowland 2003, Qu & Soriano 2004).

그림1. 합계출산율(호주, 1921~2004년)



자료출처: ABC (여러 측정연도 기준)

정책적으로 근로자의 정년을 연기시키는 것은 지식의 축적으로 인한 능률은 증가시키게 될지 모르나 젊은 층에 의한 주요 기술 혁신 등은 기대하기 어렵게 만든다. 또한 이민으로 인구의 구조적 문제를 극복 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McDonald and Kippen, 1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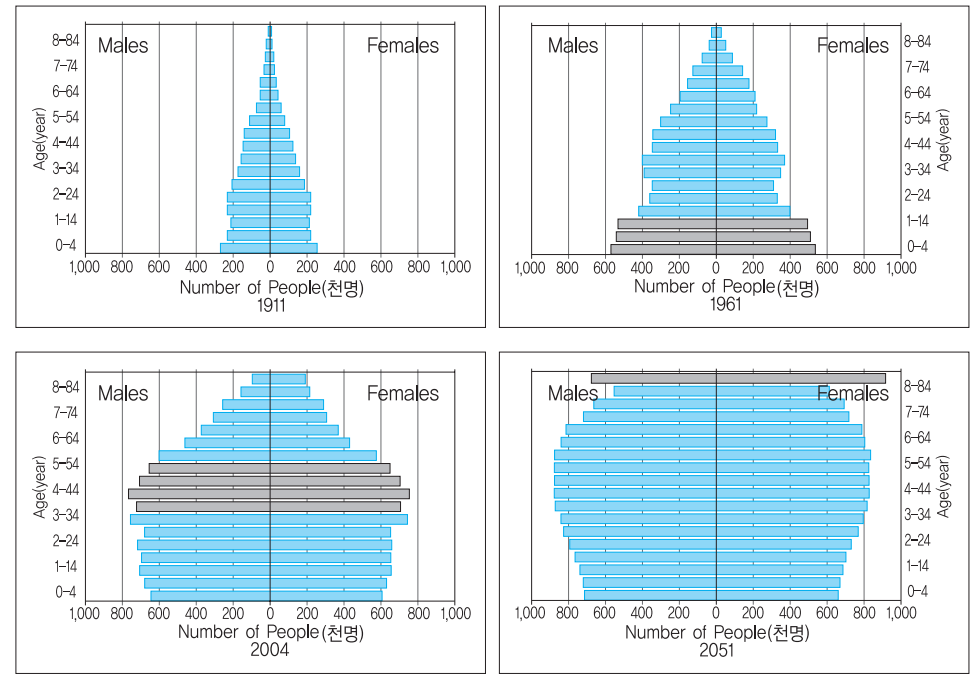
4. 저출산에 대한 거시적 설명

출산율을 감소시키는데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보면 피임기술의 발달, 생애주기의 변화, 파

트너십(혼인, 동거)의 감소, 가족해체, 여성의 재정적 독립성의 증가 등의 요인 등이 있다. 특히 여성의 출산시기가 늦춰지는 것은 점차 사회적 인 경향이 되고 있어 출산율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몇몇 학자들은 경제체계의 세계화와 노동시장의 변화로 인한 불안정성이 비정규직들을 양산하여 가계의 재정적 안정성을 떨어뜨렸다고 분석한다 (Kohler, Billari, Ortega 2001, McDonald 2000a, 2001b, Saunders 2001). 이러한 불안정성은 자녀양육을 위한 직간접 비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한편 개인의 자기실

그림 2. 호주 인구의 연령 및 성별 구조, 실측 (1911년, 1961년, 2002년) 및 예측 (2051년) 결과



참고: '베이비붐' 세대(1946~1966년 사이에 출생)는 도표상에서 별도의 색상으로 표시됐음. 2051년도 연령성 구조는 다음과 같은 ABS '중간' 가정들을 기초로 예측됐음. 2018년 이후 TFR은 1.7명, 2004~2005년 이후 이민을 통한 유입 인구는 110,000명, 2051~2052년 이후 남성 및 여성의 기대수명은 각각 84.9세와 88.0세로 가정.
자료출처: ABS (1997), ABS (2005).

현, 자율, 자유 등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과 아동에게 친화적이지 못한 사회 환경, 부모의 역할 등에 대한 개념 약화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논의도 있다. 양육비용의 논의에 있어 많이 언급되는 것은 많은 국가들에서 양육비용에 대한 부담이 주로 여성에게 지워진다는 것이다.

몇몇 연구는 출산율에 영향을 주는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d' Addio and d' Ercole(2005)의

16개 OECD국가에 대한 연구와 Kogel(2006)의 연구에서는 정부의 가족급여와 유급 육아휴가, 여성 고용율, 파트타임 고용 여성의 비율이 높을수록 높은 출산율을 보이며, 반면 고용율이 낮을 때와 아동이 모(母)의 소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경우 낮은 출산율을 보인다.

5. 호주의 가족정책

1) 가족급여

호주의 가족 급여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가족세금혜택(FTB: Family Tax Benefit)이다. 가족세금혜택 파트 A는 자녀의 수와 연령에 따라 지급되며, 파트 B는 편부모를 포함하여 주요 소득원을 하나만 가지고 있는 가족을 보조해주는 것이다. 그밖에도 자녀보육수당(Child Care Benefit)과 육아공제(Child Care Tax Rebate)로 육아비용을 보조한다. 또한 아동의 탄생이나 입양에 따른 모성급여, 아동의 예방접종을 권장하기 위한 접종수당도 지급된다.

가족세금혜택의 A파트는 주택임차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기도 하며, 세 쌍둥이 이상을 출산한 가족에게 복수출산수당(Multiple Birth Allowance)을 지급하기도 한다. 또한 자녀가 셋 이상인 가정에게는 대가족 보조금을 지급한다.

2) 부모급여(Parenting Payment)

부모급여는 '일하는 복지 프로그램 패키지(Welfare to Work Package)'에 따라 2006년 7월에 변화를 맞았다. 부모급여의 수급 대상자들은 그들의 가장 어린 자녀 연령이 6살이 되기까지 급여를 받는다. 부양의무를 지면서 수당에 의존하는 비근로자는 구직 노력의 의무를 진다. 편부모이고 주요 부양자면서 부모급여 수급 대상자는 가장 어린 자녀가 8살이 될 때까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3) 자녀보육

자녀보육수당은 허가, 또는 등록된 육아시설을 사용한 시간에 따라 지급이 된다. 연소득이 \$34,310(≈2,500만원)이하인 가구나 소득보조금을 받는 가구에 대하여는 시간당 \$2.96(≈2,100원)시설 사용비가 지급이 된다. 추가적인 보조는 육아공제로 이루어진다.

4) 모성급여(Maternity Payment)

모성급여는 출산이나 입양에 따른 영아의 양육을 위해 지급된다. 보통 \$4,000(≈290만원)가 일괄적으로 지급되며, 둘 이상의 쌍둥이 출산 시에는 아동 수에 따라 지급된다. 급여를 위한 소득이나 자산조사는 없다. 2008년 7월 이후 출생하는 아동에게는 \$5,000가 지급될 예정이다.

5) 양육 휴가(Maternity and paternity leave)

호주에는 법적인 양육휴가는 없으나 12달을 근속한 근로자들에게는 52주의 무급양육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04년에는 34 퍼센트의 여성, 20 퍼센트의 남성근로자가 유급양육휴가를 받은 바 있다.

총체적으로 볼 때 호주의 가족에 대한 지출은 198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GDP대비

2.8%에 달하여 OECD국가들 가운데 7위로 높은 편에 속한다.

수는 인구 대체수준 이상이었을 뿐 아니라 그들이 예상하는 장차 가족 인원수보다 더 많았다.

가족에 대한 바램과 기대수준은 안정적인 수입과 고용, 일과 가족에의 시간 배분 등의 여부에 의하여, 보다 높은 연령층에게는 노화와 생식능력약화 등의 문제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자료는 많은 이들이 자녀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좋은 부모의 자질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표 1 참조).

6. 출산에 대한 인식

호주 가족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호주국민들은 그들의 주요가임시기에 이미 자녀를 두고 있거나 또는 갖기를 원하고 있다. 남녀 모두 이상적이라 생각하는 가족의 평균 인원

표 1.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비율 및 순위(남녀 응답자 구분)

	남성 %	여성 %	남성 순위	여성 순위
자녀 양육 능력	65	67	1	1
여성 배우자의 어머니로서의 자질	65	58	1	3
남성 배우자의 아버지로서의 자질	63	60	3	2
사랑하는 상대의 유무	57	46	4	7
남성 배우자의 직업 안정성	53	57	5	4
여성 배우자의 연령	49	56	6	5
배우자간 관계 지속의 불확실성	47	47	7	6
인생의 목적/의미 부여	45	39	8	11
남성 배우자의 연령	42	42	9	9
남성 배우자의 안정된 직업/경력	41	37	10	13
자녀에게 남아/여아 동생을 만들어 주는 것	40	37	11	13
양질의 보육서비스	40	46	11	7
자녀가 배우자를 기쁘게 해줄 것인가?	37	23	13	23
여성 배우자의 직업 안정성	34	38	14	12
자녀가 배우자 관계에 좋은 영향을 줄 것인가?	32	27	15	19
주택 구입/개조/이사 능력	32	30	15	17
남성 배우자의 경력 개발에 필요한 시간/노력	30	40	17	10
자녀가 살아가기에 적합한 세계	30	29	17	18
여성 배우자의 안정된 직업/경력	29	37	19	13
여가 및 사고 활동을 위한 시간	27	24	20	21
여성 배우자의 경력 개발에 필요한 시간/노력	26	24	21	21

<표 1> 계속

	남성 %	여성 %	남성 순위	여성 순위
자녀 양육에 따른 스트레스와 근심	24	34	22	16
최소한 1명 이상의 아들/둘째 아들	23	12	23	28
고가품 구매 여력	22	22	24	24
관계에 대한 과도한 스트레스	22	26	24	20
나머지 자녀에 대한 무관심	19	22	26	24
최소한 1명 이상의 딸/둘째 딸	18	16	27	26
다루기 힘든 자녀	11	15	28	27

자료출처: Weston et al. (2004).

7. 파트너십의 중요성

<표 2>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혼인 및 동거에 의한)파트너십 비율은 모든 연령대에 걸쳐 감소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적절한 파트너를 만나지 못하는 것과 관계의 불안정성이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출산율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보인다(<표 2> 참조).

과거 파트너십 형성은 사적인 영역으로 정부 개입의 여지가 없었으나 오늘날 싱가포르, 미국 등 몇몇 정부들이 파트너십의 질과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6년 호주 정부도 새로운 가족법 체계(Family Law System)를 수립하고 이혼 가정 지원 뿐 아니라 건강한 가

표 2. 배우자와 함께 생활하는 남성 및 여성의 비율(1986년, 1996년, 2001년)

		1986	1996	2001
		비율		
남성	20-24세	20	15	13
	25-29세	53	43	41
	30-34세	71	62	59
	35-39세	77	70	66
	40-44세	79	73	69
	45-49세	79	75	71
여성	20-24세	39	27	24
	25-29세	67	57	53
	30-34세	77	70	66
	35-39세	80	73	70
	40-44세	79	74	71
	45-49세	78	73	70

자료출처: Birrell, Rapson, Hourigan(2004).

정들을 장려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 ■ 참고문헌

ABS (various years), *Births Australia*, Cat. No. 3301.0,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Canberra.

ABS (1997), *Australian Demographic Trends 1997*, Cat. No. 3102.0,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Canberra.

ABS (2005), *Population Projections Australia 2004-2101*, Cat. No. 3222.0, Australian Bureau Statistics, Canberra.

Birrell, B., Rapson, V., & Hourigan, C. (2004), *Men + women apart: Partnering in Australia*, The Australian Family Association and Centre for Population and Urban Research, Melbourne.

d' Addio, A. and d' Ercole, M. (2005), "Trends and determinants of fertility rates in OECD countries: The role of policies",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27*, OECD, Paris.

Kogel, T. (2006), *An Explanation of the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Fertility and Female Employment Across Western European Countries*, Department of Economics, Loughborough University, Loughborough, United Kingdom.

Kohler, H., Billari, F. C., & Ortega, J. A. (2001), "Towards a theory of lowest-low fertility", *MPIDR Working Paper WP*

8. 결론

본 논문은 가임연령층의 증가, 경제변영, 상대적으로 낮은 실업률, 모성 휴가시 높은 수준의 대체임금, 아동 양육비의 부담을 줄여주는 정부의 가족지원, 높은 여성 취업률(특히 모의 취업률), 높은 육아시설 사용빈도, 여성의 파트타임 직업의 높은 비율 등의 거시적 요인들이 출산율에 기여함을 보여준다.

호주의 경제변영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녀를 양육하고 금전적, 감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가족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유지하는 것에 대하여 우려한다. 이는 정책들이 거시적이고 미시적인 차원의 요소 모두를 다루어야 함을 보여준다. 나아가 아이를 갖기로 하는 결정은 한 부부의 결정이기에 현존하는 파트너십이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요컨대 정부는 낮은 출산율이 단지 자녀를 원치 않음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통합적인 접근을 취해야 할 것이다. 호주의 출산율을 높이거나 최소한 현재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키우는 일이 매우 보람차고 행복한 일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부부는 안정적인 수입원과 안정적인 관계, 기술과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환경과 아울러 가족 친화적인 환경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 2001-032, Max Planck Institute for Demographic Research, Rostock, Germany
- McDonald, P. (2000a), "The "toolbox" of public policies to impact on fertility - A global view", Paper presented at the seminar "Low fertility, families and public policies", organised by the European Observatory on Family Matters, Sevilla.
- McDonald, P. (2001b) "Fertility and the three types of women: It's not that simple", *OzPop Australian Population Futures*.
- Qu, L. & Soriano, G. (2004), "Forming couple relationships: Adolescents' aspirations and young adults' actualities", *Family Matters*, 68, 43-49.
- Rowland, D. (2003), "An ageing population: Emergence of a new stage of life?", in S. Khoo and P. McDonald (eds), *The Transformation of Australia's Population: 1970-2030*,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Sydney.
- Saunders, P. (2001), "The changing social security policy context: Implications for the CDEP Program, the Indigenous Welfare Economy and the CDEP Scheme", *CAEPR Research Monograph No. 20*, Centre for Aboriginal Economic Policy Research,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Canberra.
- Weston, R., Qu, L., Parker, R. & Alexander, M. (2004), "It's not for lack of wanting kids: A report on the Fertility Decision Making Project", *Research Report No. 11*, Australian Institute of Family Studies, Melbourne. [GSSI](#)